

# 주요 토론내용

신종원 서울YMCA 실장

1. 2013년 시작하는 새 정부, 이 정부의 임기 도중 분단 70년 (2015년),  
끝날 때 쯤이면 2020년이 가까워짐.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이 필요한 정부임.  
과거 냉전시대의 잔재인 첨예한 좌우 대립, 지나치게 반공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는 현실 등을 넘어, 중도와 통합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  
를 내다봐야 함.
2. 방송 통신 영역에서는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의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미 CPND 제반 영역에서의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으며, 향후 ICT 거버넌스 구축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황 조건임.  
과거 ICT 성장시기의 정통부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시장  
의 상황을 거스를 수 없음.  
  
또 ICT 기능이 인체의 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므로, 정부 모든 기능, 부문  
에 ICT 기능의 편재가 불가피함.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 조율하고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누군가는 뒷받침해야 할 것인데, 이 일이 새로운  
ICT 거버넌스 의 역할임.
3. ICT 거버넌스의 효율적 역할을 위해 독임제 행정부처 형태의 정부 구성이  
필요하며, 이 기구의 핵심적 가치는 지원, 통합, 네트워크, 시너지 임.  
이를 위해 현재 분산되어있는 핵심기능과 역할을 통합 운용해야함.  
  
1) 시장에서의 먹을 거리, 미래 가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 기능  
2) 그릇, 장(ground) 을 키우는 미래 지향적 관점, 유연한 대응역량이 필  
요함. 세계 시장 뿐 아니라 남북화해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변수  
도 정책에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ICT 기구가 필요함.  
3) 모든 정부 구조 안에 있는 ICT 기능을 연결하고 촉진하며, 지원해 시  
너지를 만들어 가는 기능

4. 과거 방송이 가졌던 사회적 보편 서비스로서의 역할은 이제 융합상황으로 방송과 통신에 공히 적용되게 되었음.

국민의 관점에서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역할 살려나가야 함

이미 방송과 통신의 콘텐츠 경계도 그 의미가 뚜렷하지 않게 된 상황임.

공공성, 공정성, 공영성을 위한 공적 통제는 방송 외에 통신 영역에서도 공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인 위원회의 장점인 합의 기능, 수렴기능 등을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함.

정권의 입장에서, 방송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사장 이사 선임 등 정치적 욕심 버릴 필요가 있으며, 과거 정권이 방송 장악을 하지 못해 혼이 났다는 식의 이해에서 벗어나야 함.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혼이 난 것이라는 이해를 하고 가야하며, 판단의 몫을 시청자(국민)에게 돌려야 함. 이정희 현상처럼 편향된 작용이 있으면 이에 대한 균형을 국민이 잡아가는 시대임.

5. 독임제 행정부와 위원회 간의 위상 및 관계설정 문제는 업무와 역할 분장을 정확히 해가면 큰 문제 없음